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3호 [루체 제25782호] 주제 106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인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인 특군상장 조남진동지, 특군중장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특군소장 박동규동지를 비롯한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9월 이 농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연구소를 첨단농업과학연구소답게 새로 건설하며 현대적인 온실을 도 하나 일파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고 주변농장을 시험농장으로 전환시켜 주시었을뿐만아니라 끝없는 세대교인들을 과감해주시는것을 비롯하여 농장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펼쳐나신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달려온 군인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연구소와 온실, 수실동의 살림집을 훌륭히



건설하였으며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육성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목9>호, <밭벼24>호, 수수강변이를 비롯한 농장에서 육성해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신 다음 새로 건설한 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일떠선 연구소는 연건축면적이 3,890여㎡이고 첨단설비들을 갖춘 실험생물공학실, 배양실, 원종보관실, 과학토론회실,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연구사들의 연구사업과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침실, 식당, 운동실, 목욕실을 비롯한 문화휴식 시설도 구색이 맞게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층으로 된 연구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첨단농업과학연구기지답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며 흠잡을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 농장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 벼, 강냉이, 사탕수수, 목화, 사과, 복숭아, 포도, 대추 등 갖가지 농작물들을 전시해놓았는데 정말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였다.

현대적인 연구소가 임피섬으로써 이 지역의 변모가 일심되었다고, 연구사들이 대단히 좋아하며 더 좋은 연구성과로 당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곳 농장의 연구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같은 배려를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자면 일꾼들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 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조건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및 육성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종자육종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논벼, 밭벼, 수수강냉이, 검은강냉이, 사탕칼 등을 보시고 만족해하시면서 농장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연구하는것과 함께 온 나라에 널리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남새작물밭에 들어서시며 생산성과 영양기가 늘리울 정도로 높은 남새작물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인민들과 군인들의 남새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몹소 남새작

물의 이름을 단백초라는 의미에서 <단백초>라고 명명해주시였다.

<단백초>는 한번 심어 여러번 베어 수확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흙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경작할수 있는 아주 좋은 남새작물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널리 퍼쳐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물결치는 밭벼포전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올해 <밭벼24>호를 파종한 후 60여일간 심한 가물이 들었지만 가혹한 조건에서도 풍작을 거둘수 있게 되었는데 가물건달성이 매우 강한 물결약형의 다수확벼종이라는것이 입증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